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7

눈 앞에 있는 그대로 보라

[원문]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 무단역무장(無短亦無長) 본래비조백(本來非黑白) 수처현청황(隨處現靑黃) -마니산 정수사

[번역]

거룩하고 위대한 신 부처님은 짧지도 길지도 않으며 본래 회거나 검지도 않으며 모든 곳에 인연 따라 나타나시네.

[선해(禪解)]

어느 절이든 사찰의 유래는 깊다. 그것은 그 사찰만이 가진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된 사찰들은 그 나름의 독특한 정취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사찰들이 붐고 있는 전통사찰이 현대와 어울려 차츰 그 품격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물을 재건하거나 중창을 할 때 반드시 짓고 나가야 할 보존법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건물을 해체 보수 할 때는 기존의 건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말이다.

몇 년 전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도 일제침략과 한국전쟁으로부터도 지켜왔던 국보 1호 남대문을 한 개인의 원한과 욕심으로 인해 잃고 말았다. 이 유야 어룡든 심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나간 상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수백억을 들여 다시 남대문을 재건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남대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용과 품격을 어떻게 재건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찰 건축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여 치밀한 계획 아래 다시 세워지겠지만 염려가 앞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조상들만이 가진 독특한 사찰 건축기술을 현대인들의 건축술의 잣대만으로 쉽게 재건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보다 더 치밀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찰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적 재산인 국보와 보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전적으로 그 사찰의 주지나 스님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참으로 우리 스님들의 공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일 사찰에 스님들이 없다면 국가는 국보와 보물들의 보존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에 대한 사찰의 지원이 턱없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공정하고 정당한 관리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상정

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사찰의 보수나 관리에 있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 더욱이 사찰 보수나 중창에 있어 기존 문화재의 모양과 채색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소홀히 하다보면, 전통사찰이 마치 현대에 지은 사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심히 안타까운 심정마저 든다.

최근에도 전통사찰들의 주변이 개발되면서 사찰의 수행환경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약한데다가 개발론자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향한 열망이 너무나 강해 사찰로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전통사찰을 종교적 시각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민족의 문화유산, 무형과 유형의 유산과 거기에 스님이 역사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락에는 노랑 상사화 군락이 형성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수사 하면 차(茶)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차(茶)의 성지라고 할 만큼 물맛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처음 절의 명칭은 정수수련을 해도를 얻으라는 뜻인 정수사(精修寺)로 표기를 했다가, 무학 대사의 제자이며 깍다(喫茶)의 달인으로 불렸던 함허(涵虛) 스님이 경내에 솟은 맑은 샘물을 보고 정수사(淨水寺)로 바꾸었다고 한다. 함허 스님이 남긴 한 수의 선시(禪詩)는 이 절이 가진 차의 맛을 단 한 줄로 압축한다.

불가에서 차를 마시는 행위는 곧 참선 수행이 되는 '다선일여(茶禪一如)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불교와 차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스레 꽃을 피웠다. 차를 마시는 일은 부처와 내가 하나 되는 삶, 차와 선이 하나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행과정이다.

그래서 고려 때 지눌 스님은 "불법은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곳에 있다"고 설법하였으며 함허 스님은 "한 조각의 마음, 한 주발의 차에 있나니"라는 사를 남기기도 했다.

대웅전의 주련 속에 담긴 '거룩하고 위대한 신 부처님은/ 짧지도 길지도 않으며/ 본래 회거나 검지도 않으며'는 주련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中道)사상이다. 말하자면 현실을 바라보며 있어 모자라지 않고 넘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곳에 인연 따라 나타나듯' 이 부처님이 반드시 화현한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깨달음이란 현실과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보살의 바라밀을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쉽게 말해서 중도란 '이변(離邊) 즉 양변을 떠나나 비중(非中) 그렇다고 가운데도 아니다.' 라는 의미인데, 쾌락과 고행, 이익과 손해 등의 일체의 양변을 떠나고 그들의 중간에도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도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부처님이 처음 법륜을 굴릴 때 나온 말씀인데 일단 승가에서는 쾌락과 고행의 어느 쪽에도 기울지 말고 수행하려는 의미로 보면 된다.

더욱이 요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항상 말을 덧붙여 말하거나 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는 몸속에 욕망에 대한 집착과 거짓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자기를 속이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것이다. 정수사 대웅전의 주련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욕망과 집착에 물들어 사물의 본래 모습 못 봐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핵심 보는 안목 갖춰야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짓고 나아가야 할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하고 싶다.

오늘의 주련 여백은 정수사다. 이 절은 강화도 마니산 동쪽아래에 누운 작고 아담한 절이다. 대웅전 뒷마루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면 멀리 인천의 영종도와 은빛으로 빛나는 갯벌이 한눈에 들어온다. 신라 선덕여왕 때 회경 스님에 의해 창건된 이 절의 대웅전은 조선 초기 주심포 양식으로 정면에는 특이하게 날찍한 마루가 있어 마치 시골집을 찾는 기분 갖게 한다.

법당 건물의 기둥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게의 중심이 공포와 기둥을 통해 지면으로 전달되는 특이한 구조로 초석(礎石)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봉정사 극락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 대표적인 건물로 보물 제161호이다.

대웅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과 네 분의 협시불이 모셔져 있다. 천장의 중앙에는 율곡 파인 우물 식이며 그 주위는 빗전장으로 화(飾)와 용(龍)을 그려 넣어 법당내부는 온통 문양(紋樣)으로 가득 찬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호는 꽃살 무늬로써 화려함과 정교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걸터마의 단청은 어느 절과는 색에서부터 문양까지 그 차이가 매우 커 아름답다.

정수사에는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상사화다. 상사화는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달려 있을 때에는 꽃이 없어,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 한다는 꽃으로써 늦여름이면 정수사 마당 앞의 산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7

미혹한 수행 윤회 면치 못해

[원문]

問曰 若不見性 念佛誦經 布施持戒精進 廣興福利 得成佛否 答曰 不得 又問 因何不得 答曰 有少法可得 是有爲法 是因果 是受報 是輪迴法 不免生死 何時得成佛道 成佛須是見性 若不見性 因果等語 是外道法。

여쭙기를, "본래부터 있는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다라도 염불을 하고 경을 읽고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여 멀리 북을 두으면 부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될 수 없느니라" 하셨다.

"어찌하여 될 수 없습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중생심이 부리는 유위법이며 인과의 법이며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를 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데 어느 때에 부처가 되겠느냐? 부처가 되려면 마땅히 자기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기의 본성을 봐야 하는데 본성을 보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 외도의 법이니라."

[해설]

'본래부터 있는 자기의 본성(本性)을 보지 못하다'도 염불을 하고 경을 읽고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여 멀리 북을 두면 부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제자가 묻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염불을 열심히 하고 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행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이 있다면, 아마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깨달을 수 있겠거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마 스님께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에 계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부근에 성이 하나 있는데, 달마 스님이 양무제와 대화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가 있습니다. 당시 양무제는 불심 천자(佛心天子)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신심도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금룡포를 두르고 가사를 걸치고 직접 문무백관(文武百官)을 상대로 <금강경>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팔만사천 개의 탑을 세웠고 절을 많이 지었으며 스님들도 많이 양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 공양도 많이 올리는 등 큰 북을 지은 분이죠. 양무제 스스로도 큰 북을 지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무제는 중국에 도인이 있다면 그 분을 모셔다 공양도 올리고 자기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 무렵 인도에서 달마 스님이 건너왔다는 소문을 듣고 양무제는 달마 스님을 궁으로 불러들여 다른 스님에게 했듯이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달마

스님께서는 "공덕이 없습니다" 하고 한 마디로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공덕이 훌륭하다고 추켜세웠는데, 달마 스님께서는 공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양무제는 달마 스님이 왜 공덕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공덕이 없다'는 것은 선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깨달으신 자리에서 일러 주셨는데, 양무제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불교를 전하려고 중국에 오셨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할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소림사 동굴로 들어가서 9년 동안 때를 기다린 겁니다. 거기서 제자인 2조 혜가대사를 만나서 중국에 선을 전하게 된 것이죠.

달마 스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은 불성을 모르고 경을 읽거나 염불을 외우거나 보시를 행하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여 멀리 북을 두

으면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성품을 바로 보고 염불했을 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를 정확히 알고서 정진을 해야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모르면 진짜 성품의 자리 역시 모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염불을 하거나 경을 외거나 해도 아무런 공덕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부는 뭐하러 하나' 하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지만 성품을 모르고 가는 길은 끊임 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즉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성품을 보고 정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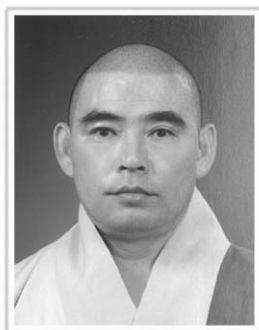
두 길이 분명 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갈 것인가? 윤회의 세계로 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고 싶습니까? 괴로움이 있는 세계로 가시고 싶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가시고 싶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가시고 싶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불교를 정확히 알고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지요. 달마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정진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굴 달마도'. 日 녹원사(鹿苑寺) 소장.

최면사 · 퇴마사 1:1 실전교육



빙의 이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을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을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시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퇴마전생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 교육비용 : 200만원
◇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 (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 「귀신씩인 나무의 실제」 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2-0666 / 364-5586 / H·P 010-5656-3915 /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 봉사 최면사 · 퇴마사 현오 합장